

## KT스카이라이프, '사랑의 안테나' 국민사연 공모



### 방송 소외계층에 TV·셋톱박스 기증도

KT스카이라이프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사랑의 안테나' 국민사연 공모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사랑의 안테나는 난시청 지역 등 방송 시청 환경이 열악하거나 TV를 통해 문화와 정보 습득이 필요한 장애인·취약계층 시설에 UHD TV와 스카이라이프의 UHD 셋톱 박스를 기증하는 위성방송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국민사연 공모를 진행하고

전국 총 158개소에 초고화질 방송 시설을 지원해왔다.

이번 사연 공모는 누구나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에 공지된 양식을 통해 사랑의 안테나가 필요한 장소와 사연을 작성해 메일로 응모할 수 있다. 회사는 공모된 사연들을 심사해 2019년 상반기 '사랑의 안테나' 기증 대상을 선발하고 내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시설협회와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다음 카카오 '같이가자'를 통해서도 기부금 등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한국타이어 올 상반기 사회복지기관 287곳 지원

### '타이어나눔 지원사업' 선정기관 발표

한국타이어의 사회공헌단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2019 타이어나눔 지원사업'의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 287곳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의 '타이어나눔 지원사업'은 한국타이어의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Mobility)'을 반영한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시행된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총 1만8852개의 타이어를 이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전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2019 타이어나눔 지원사업'의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기관 287곳을 발표했다.

국 사회복지기관에 지원했다.  
지난 3월 실시된 '2019 타이어나눔 지원

사업' 상반기 공모에는 전국 553개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관 운영 평가 내용과 대상 차량의 운행 현황 및 목적, 타이어 마모와 파손 정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총 287개 기관이 타이어나눔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티스테이션(T'Station)의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플랫폼인 '티스테이션닷컴'을 통해 타이어 교체를 진행할 대리점과 일자를 사전에 예약한 뒤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는 기본적인 노후 타이어 교체와 훈 열라인먼트 점검을 비롯해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배터리 교체 등 경정비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42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54년생 상대를 배려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6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해야. 78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챙겨라. 90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성공.

43년생 자민심을 버리고 겸손하라. 5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헤아야 보배. 67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지게 되니주의. 79년생 역사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큰 행운이 따르는 하루.

44년생 반기운 사람을 만나서 대접받을 운. 56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80년생 별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없다. 9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

45년생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봄 맞을 준비. 57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 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가까운 사이 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81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93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46년생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58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사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70년생 남의 부러움을 시는 날이나 실속은 없다. 82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94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47년생 먼 장래의 큰 성과보다 눈앞의 이익에 신경 써라. 5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1년생 김칫국부터 미시디기는 큰 낭패. 8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라. 95년생 기회가 주어지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 오늘의 운세 4월 23일(음 3월 19일)



36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다. 48년생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6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72년생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84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다.



37년생 내가 좋다고 남도 다 좋은 건 아니다. 4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1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3년 생 비가 든 구름을 겉으로 봐서 어찌 알겠는가? 85년생 마음은 표현하라.



38년생 웃지 않고 보면 날은 의미가 없다. 50년생 낙수술에 바위가 뚫리는 법 아니 꾸준히 노력. 62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나간다. 74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 갚으러 온다. 86년생 보는 사람 없이 비단옷으로 멋을 낸다.



39년생 바쁘기는 하지만 실속은 없다. 51년생 남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회살이 되어 돌아온다. 63년생 우선 비상금을 이용하여 위기를 모면. 75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87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40년생 형제자매와의 유대를 강화하라. 52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64년생 일이 풀리는 듯하나 의외의 복병을 조심. 76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88년생 친구에게 옷깃을 스며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41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53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서는 웃지 않는다. 65년생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 큰 보답이 온다. 77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89년생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자.



42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54년생 상대를 배려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6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해야. 78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꼭챙겨라. 90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성공.



43년생 자민심을 버리고 겸손하라. 5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헤아야 보배. 67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지게 되니주의. 79년생 역사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9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큰 행운이 따르는 하루.



44년생 반기운 사람을 만나서 대접받을 운. 56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68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80년생 별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없다. 92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



45년생 집 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봄 맞을 준비. 57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 할 일이 생긴다. 69년생 가까운 사이 일수록 예의를 갖춰야. 81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 93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라.



46년생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58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사를 끌어안고 있는 형국. 70년생 남의 부러움을 시는 날이나 실속은 없다. 82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된다. 94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격.



47년생 먼 장래의 큰 성과보다 눈앞의 이익에 신경 써라. 5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71년생 김칫국부터 미시디기는 큰 낭패. 83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쓰라. 95년생 기회가 주어지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풀풀!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2 | 8 |  |  |
|   | 6 | 1 | 9 |   |   |   |  |  |
| 9 | 4 | 5 |   |   |   |   |  |  |
| 5 |   | 6 |   | 7 | 4 |   |  |  |
| 8 |   |   |   |   | 2 |   |  |  |
| 7 | 6 | 3 |   |   | 9 |   |  |  |
|   |   |   | 6 | 4 | 3 |   |  |  |
| 7 | 1 | 3 |   |   |   |   |  |  |
| 1 | 8 |   |   |   |   |   |  |  |

|   |   |   |   |   |   |   |   |   |
|---|---|---|---|---|---|---|---|---|
| 2 |   |   | 6 |   | 4 |   |   |   |
| 3 | 6 | 7 | 4 | 1 |   | 2 |   |   |
| 4 | 5 |   |   |   | 9 | 3 |   |   |
| 7 |   |   |   |   |   | 8 |   |   |
| 6 |   |   |   |   |   | 1 |   |   |
| 2 | 6 | 7 | 1 | 7 | 5 | 2 | 6 |   |
| 6 | 8 | 2 | 4 | 7 | 3 | 9 | 5 | 1 |
| 9 | 1 | 5 | 6 | 2 | 8 | 4 | 3 | 7 |
| 5 | 6 | 3 | 7 | 5 | 4 | 1 | 8 | 2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1      | 4 | 9 | 8 | 3 | 2 | 5 | 7 | 6 |
| 5      | 7 | 3 | 9 | 1 | 6 | 8 | 2 | 4 |
| 6      | 4 | 7 | 1 | 9 | 3 | 5 | 8 | 2 |
| 2      | 9 | 5 | 4 | 7 | 3 | 1 | 6 | 7 |
| 7      | 2 | 6 | 4 | 3 | 5 | 1 | 9 | 8 |
| 4      | 8 | 3 | 9 | 1 | 7 | 5 | 2 | 6 |
| 1      | 5 | 9 | 8 | 6 | 2 | 7 | 3 | 4 |
| 9      | 7 | 4 | 5 | 2 | 8 | 3 | 6 | 1 |
| 8      | 3 | 2 | 6 | 7 | 1 | 9 | 4 | 5 |
| 5      | 6 | 1 | 3 | 4 | 2 | 8 | 7 | 6 |

문제 제공=

## 치킨값 2만원시대

### 기자 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인식은 2.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간 소비자가 인식한 물가 상승률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2.4%가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달 물가 인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격차는 1.9%포인트를 기록했다. 2018년 1월(1.7%포인트) 이후 가장 커졌다.